

# 2021학년도 고려대 교사간담회

2020.06.19.

※ 교사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 중 모집요강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. 교사와의 Q&A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
(생략한 내용)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·정시 입학전형안내 (아래영상과 동일합니다.)

<https://youtu.be/J1Cx9Q2UQV4>

## ◆ 전형 요약 ◆

### 1. 평가항목 중 ‘전공적합성’ ⇒ ‘계열 적합성’으로 용어 변경

- 해당 전공에 적합학 학생이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 해당 전공 계열에 적합한 학생을 뽑겠다.
- 전공과 다른 비계열이라도 열심히 활동했으면 ‘성장가능성’으로 포함하여 평가하겠다.

### 2. 교사추천서 폐지와 자소서 선택의 영향

- 기존에도 추천서의 좋은 코멘트로는 가점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감점하는 걸로 활용했다.
- 추천서가 없어 부족한 부분은, 학생부에서 확인하겠다. 부정적인 기록이 한두번이 아닌 여러번 누적되어 있다면 감점하겠다.

### 3. 면접평가

전형		면접유형
학교추천		녹화 영상 업로드(P/F)
일반전형	학업우수형	
	계열적합형	비대면 화상면접 (고려대 방문하여 제시문 보고 면접 녹화 후 귀가)
기회균등		
특기자전형		

### 4. 학교추천전형

- 작년 학교추천1과 학교추천2를 합친 전형.
- ‘[학교추천1](#)’과 ‘[학교추천2](#)’ 사이에서 합격자 등급이 분포할 것이라 고대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.
- 수능최저가 학추2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, 작년기준 학교추천1보다 학교추천2를 쓸만한 학생들이 더 지원할거라 생각함.
- 면접이 Pass or Fail 로 바뀜. 제시간에 업로드하고 ‘신분 노출’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Pass이다.
- 고대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, 최상위권학생들의 비교과는 대부분 좋아 “서류20%”에서 큰 차이를 안보이고 면접으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. 하지만 올해는 면접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**교과의 영향력이 더 절대적**일 것이라 예상함.
- 작년 학교추천1의 결과
  - 지원경쟁률 3.88:1,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자를 고려하면 1.87:1
- 작년 학교추천2의 결과
  - 지원경쟁률 6.91:1, 면접응시자 중 수능최저 충족자를 고려하면 2.67:1

## 5. 일반전형-학업우수형

- 면접이 Pass or Fail 로 바뀜. 제시간에 업로드하고 '신분 노출'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Pass이다.
- 서류평가의 영향이 절대적이다.

## 6. 일반전형-계역접합형

- 학교추천과 학업우수형처럼 Pass or Fail이 아니다. 면접을 평가하고 방식만 면대면에서 비대면으로만 바뀌었다. 고대에 나와서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
- 타전형에 비해 면접 난이도가 있다. 단순한 문제풀이식 아니며 교육과정안에서 출제한다. 해당계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,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.

## 7. 올해 고대 지원전략

- 학교추천전형은 면접이 무의미해져서 교과등급이 매우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. 수능이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추보다 학업우수형이 좋은 선택일 듯.

# ◆ 질문 답변 정리 ◆

## 1.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

- 교육부에서 1차(평가전)와 2차(평가 후)로 나누어 학생부를 전송.

1차 자료	성명, 주민번호, 사진, 학교명, 수상수여기관, 봉사활동기관을 삭제한 자료(블라인드된 자료)
2차 자료	성명, 주민번호, 사진, 학교명, 수상수여기관, 봉사활동기관을 삭제하지 않은 온전한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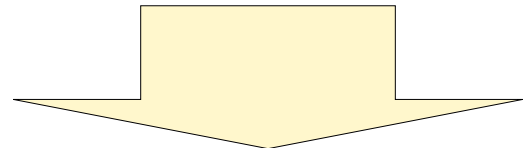
- 1차 자료를 통해 평가 후, 2차 자료는 자기소개서를 연결시키는 부분, 농어촌 특별전형과 같은 지원자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인다.
- 우선 올해는 대학에서는 1,2차를 동시에 받는다. 하지만 평가자에게는 절대로 평가 완료 전에 2차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.
- 2차 자료를 통해 동일고교를 묶고, “동일고교 작업이 추가된 1차전송자료”를 보고 평가자는 평가를 한다.

### 동일고교 지원자들을 활용해 평가하는 방법(수상)

소속고교 평균		모집단위 평균
재학	6회 / 16명	11회/391명
재수	4회 / 4명	

분류	수상명	등급(위)	수상연월일	참가대상(참가안함)	동일수상지원자
국어	백일장	동상(3위)	2016.07.15.	1학년 중 참가자(92명)	4

동일수상지원자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됨.



전형명	모집단위	수험번호	지원자명	등급(위)	비고
일반전형	철학과	adfasdf	000	금상(1위)	동일 수상 중 1건
학교추천1	사회학과	asfasdf	000	은상(2위)	동일 수상 중 2건
일반전형	수학과	asfasdf	000	동상(3위)	동일 수상 중 3건
학교추천2	미디어학부	adfasdf	000	은상(2위)	동일 수상 중 1건

올해부터는 수험번호가 아닌 식별번호를 사용한다.

※ 위 화면은 작년기준 프로그램 화면이지만, 동일고교를 묶는 기능은 올해에도 사용할 예정.

- 고교공통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, 동일고교를 묶어서 지원자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파악하려 한다.
- 각종 행사에 쓰인 학교 약어도 블라인드 하려고 계획 중이며,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구분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.
- 고교프로파일 및 전형 서류의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간 비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비교과 부분에서 양적으로 우수한 학교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(입학 사정관의 개인적인 판단)
- 지원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는 프로그램상 연결되어 볼 수 있다. (선택교과를 확인할 수 있음)
- 지원자가 1명인 학교는 동일고교 비교기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원자가 많은 학교에 비해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. 입학사정관의 경험적인 측면에서, 오히려 비교대상이 없어 학업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함. (입학 사정관의 개인적인 판단)

## 2. 코로나로 인한 부족한 비교과 평가

- 연대처럼 일부를 제외하고 평가하지는 않을 거다. 학종은 주어진 환경안에서 보여준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,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.
- 교육부에서 **단위학교별 코로나로 인한 특이사항**들을 곧 받을 예정이다. 이 부분들을 받아 환경을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. *(고교공통정보가 프로그램에 연계되었듯, 이 자료도 지원자별로 연결되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)*
- 재수생과의 상황을 잘 판단해 평가하겠다. 재수생을 평가할 때 3학년 2학기의 출결과 교과학습 발달사항을 유심히 본다. 그 전과의 차이점을 유심히 본다. 불성실한 태도를 감점요소로 보고 있다.
-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높은 등급 아이들 숫자가 적어진 부분을 단위학교에서 걱정하시는데, 이 부분은 동일 고교를 묶어서 본다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## 3.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

- 소인수선택과목, 심화선택과목은 '계열적합성'부분에서 평가된다. 공공교육과정은 '성장가능성'부분에서 평가된다.
- 선택과목의 등급이 낮을때의 평가: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수자 수 및 과목 평균 등 정성적으로 평가한다. 성적이 좋지 않아도 진취적으로 수강한 부분을 성장가능성 부분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다.
- 물리1을 이수하지 않고 물리2를 이수한 경우의 평가: 최근 1과목이 예전 교육과정에 비해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물리1을 혼자하고 물리2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교육과정에 1과 2가 모두 있다면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따라주는 것이 좋다. 물론 물리1을 이수를 안 했어도 비교과 등 다른 곳에서 좋은 활동을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도 가능하다.
- 소규모 학교에서 과목선택을 많이 열어줄 수 없는 것 또한 알고 있다. 학종이라는 평가제도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또한 감안해서 평가할 것이다. 2015 교육과정을 대비해 선택과목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하고 이야기 하다보니, 과목 선택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선택하는게 좋다는 이야기이다. **교육과정내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수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.**
- 작년 결과에서 자연계열 합격자 중 물화생지 중 선택한 개수를 조사해보니 심지어 0개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다. 가장 높은 비율을 2개를 이수한 학생이었음. 3개 4개를 이수한 학생들이 증가하는 중. 하지만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주는 기준은 없다.
- 문이과 통합에 대한 대응은 고등학교보다 대학에서의 변화가 더욱 더디다. 대학은 계열 선발이기 때문에, 사실 인문쪽으로만 치우쳐서 공부하다가 자연계열을 지원하면 불리함이 여전히 있다.

## 4. 진로가 바뀐 학생의 평가

- 진로 변경되는 경우는 많다. 전공적합성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으로 범위를 넓혔다. 또 비전공계열이라 할지라도 성장가능성을 통해 평가하려한다.
- 자소서에는 이제 선택이고 배점이 없다. 하지만 평가자를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4번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작성해주는게 좋다.

## 5.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의 평가

- 학교봉사활동이나 시설에가서 청소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봉사활동은 유의미하게 보고 있지 않다. 3학년1학기는 봉사활동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가에 반영하겠다.
- 독서활동 기재 방식으로는 학생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지만, 평가점수로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다. 작년엔 면접평가 단계에서라도 확인을 했었지만,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질 것 같다.

## 6. 학생부 기록 간소화를 대비한 학교를 위한 조언

- 지원자가 어떤과목을 선택했는지 더 눈여겨볼 생각이다. 어렵겠지만 학교에서 가능하다면 과목 선택을 많이 열어줬으면 한다.
- 과목세특쪽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한다. 동일고교에서 세특에 중복된 부분이 많아 평가로 연결하기 힘들었다. 과목세특은 꼭 개별화된 서술을 해주셨으면 한다.

## 7. 2022년 정시확대로 인한 입시결과의 예측

- 실질적으로 뽑히는 인원은 40%를 상회할것이라 예측한다. 정시 합격생 중 재수생비율이 68.1%다. 내년엔 더 올라갈것같다.
- 수시인원도 줄기 때문에 합격자의 내신등급이 올라간다. 고대의 정책이라기보다 교육부의 정책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다.

## 8. 전북지역 고대 2020학년도 입시 분석

- 다른 전형에 비해 수시일반전형 지원인원이 3년간 많이 증가(213→310→388)했다. 이는 전라북도 학교들이 일반전형 지원 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, 특정한 학교에서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. 특정고교의 영향이 컸다.
- 인문계열은 과별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다. 자연계열은 의과 쏠림이 매우 심하다.
- 전라북도 서류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 (의대에 쏠림현상이 높아서....의대에 몰리니 서류평가가 좋은점수를 받기 힘들다)

## ◆ 전북지역 고대 분석 자료 ◆

